

“더불어 살아가는 서구 복지공동체 조성 집중”

전남매일 제3기 CEO아카데미 원우 토크방

윤정민 광주시 서구의회 의원(제3기 원우)

지역사회·단체 연계해 나눔봉사 앞장

무료 꽃꽂이 운영·저소득층에 집수리

주민과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지방정치인이자 회사경영인으로 활동하는 윤 대표의 하루하루가 짧다. 자기발전의 욕망이 공을 들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행동이다. 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에 참여해 지역 경제인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활동을 계기로 사회인으로서 위치를 자각할 수 있었고, 더욱 충실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 고민 끝에 지방정치에 입문, 현재 광주시 서구의회 2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영꽃농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 어려서부터 꽃을 좋아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소녀였다. 특히 꽃꽂이에 관심이 많았다. 결혼하고 나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참여해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할 일을 찾던 중,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1992년에 꽃농원을 열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광주시 서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한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업인으로서 더욱 뛰어난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8년에 ‘푸른 꽃꽂이 사범 1급 자격증’을 받던 이어 2011년에는 플로리스트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꽃농원을 운영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윤정민 광주시 서구의회 의원이 구정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인 ‘무료 꽃꽂이 교실’을 운영한 것이다.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아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카네이션 전달’ 꽃꽂이를 통해 재능기부를 한 것이다. 보람을 느낀다.

-서구의원으로서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2012년 암수술을 받은 다음부터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 사업에 열중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큰 수술을 받게 되니 돌 돌아보게 됐다. 남은 인생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자고 다짐했다. 처음으로 한 것이 서창동 무료 교복 지원사업이다. 이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그러면 봉사단을 만들어 보는데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마중물’이란 봉사단체를 만들

게 됐다.

서구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서구 발전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서구민 한 가족 나눔 후원품 지원’을 위해 지역의 기관과 단체의 대표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후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또 아름다운 동행 ‘결혼식 지원’ 현물 후원 사업, 저소득가정 집수리 지원사업, ‘이·미용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 이웃사랑 업무 협약식’이 서구청과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쏟고 있다. 이러한 지역민들

위한 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마음도 뿌듯하다.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은.

▲ 서구 지역 아파트 건설사업에 있어서 서구청이 해당 1군 건설업체와 MOU를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이 건설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매개자로서 역할을 해 이를 성사시켰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여러 부문에서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사업 아이디어를 건설업체와 서구청에 제안하고 지역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뤄냈다. 뜻깊은 사업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고 관청과 기업이 지

역사회,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이뤘다고 자평한다. 또 사회봉사의 하나로 서구지역 건설업체가 어려운 이웃의 헌집을 수리해 새집으로 만들어 주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안해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성사시켰다.

현재도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물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경제인으로서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경제활동은 비전과 기획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도 중요하지만 그 원천은 바로 사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제인에게 중요한 가치는 ‘나눔’일 것이다. 경제활동의 결과물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출발해 사회로 순환해 나가는 것이기에 수익이 많은 적든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그러한 순환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한다.

그러한 ‘나눔의 실천’을 후배 경제인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앞으로 바람은.

▲ 민주주의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는 행위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역할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더 좋은 광주, 더 좋은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동안 갈고닦아 온 역량을 발판으로 삼아 좀 더 넓고 더 크게 쓰일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

/글=서미애·사진=김태규 기자

“건설업, 기술·신뢰·현장노하우가 경쟁력”

전남매일 제3기 CEO아카데미 원우 토크방

정길선 금융건설 대표(제3기 원우)

시설물 유지 관리업·도장공 전문업체

건설 신기술 도입으로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강력히 반대

“옛날에는 신뢰가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돈이 최고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것에 너무 몰입돼 있다” 정 대표가 건설업을 하면서 느끼는 아쉬움이다. 하지만 “건설업은 기술력과 현장노하우만이 살길”이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한다. CEO로서 갖고 있는 확신이다.

-건설업을 하게 된 동기는.

▲ 방수용품 대리점을 운영했지만 매출이 신통치 않아 무작정 건설업을 시작했다. 경험이 없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오기가 생겼다. 야간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을 비디오와 카메라에 일일이 담아 밤새 작업과정을 분석했다. 내친 김에 대학 건설관련학과에 진학해서 공부하기도 했다. 치열한 건설시장 경쟁에서 이기려면 몸으로 부대끼고 극복해야만 했다. 건설시장에선 특허기술 없이는 어디에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장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다.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금융건설, 어떤 회사인가.

▲ 1997년 창업했다. ‘용이 빛난다’는 의미를 담았고 미장과 방수조적공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도장공사 전문업체다. 1998년 스카이에어빌딩공사라는 신기술을 도입한데 이어 2000년에는 보수, 보강복합화 공법과 RC구조물 방식을 받아들여 사세를 키웠다. 요즘 건설업은 신기술 특허로 인정받는데 하지만 25년 전에는 현장경험을 최고 가치로 여겼다. 건설현장의 노하우는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고 자부한다. 지금도 유효하다.

-신뢰와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들었다.

▲ 그렇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선배와 지인이 있어서 “당연히 하도금 공사를 주겠지” 하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곧 이 믿음은 깨졌다. 회사에 대한 신뢰와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거절당했고 기대감은 실망으로 변했다. 정말 친한 친구가 큰 건설회사 임원이었으니까 “100% 도와주겠지” 하고 믿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멀리 포항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열심히 일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선이 닿았고 포항 울산 철도차량기지의 수습역 원대 공사를 맡게 됐다.



정길선 금융건설대표가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폐지)’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땐 정말 울적했다. 마침내 내 기술력과 노력을 알아준 것이다. 아는 사람들로 부터 일감을 얻어내지 않고 내 실력, 경쟁력으로 일감을 따내 정말 뿌듯했다.

-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깨달은 것인가.

▲ 친구들과 자주하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는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돈이 최고인 세상이다.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

현대인들은 물질에 대해 너무 몰입돼 있다. 그만큼 건설관련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건설업은 기술력과 현장노하우만이 살길

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폐지)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이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폐지)을 반대하고 있다. 전국 30만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이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해 유지관리업 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슬로건으로 정부와 국민에 업종폐지 철회를 호소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업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권 침해 및 위헌·위법임을 지적하며 유지관리업종을 존치해야 한다는 호소문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논리는 시설물의 신축과 유지관리간 경계가 모호하여 전문건설업과 업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만 등록하면 모든 공사를 수행 할 수 있어 부분별 전문성 강화 한계라고 한다.

-시설물업계에 대해 권익위가 어떤 의견을 냈나.

▲ 시설물업계는 국토부에 권익위 결정수용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건설산업혁신대책의 하나로 추진되어온 업역규제 폐지 작업이 변수를 맞았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의 하나인 시설물유지업종 폐지가 당초 계획대로 2023년 말까지 이뤄질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시설물업계가 국토부에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 일방적이고 강제적 업종 폐지 정책을 중단하고, 권익위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업종 폐지를 2029년까지 유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폐지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22년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그때까지 폐지 정책의 잠정 중단을 요구한다.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땀 흘리며 기술력 증진과 함께 광복한민한 성장을 이뤘어왔다. 건축물의 대형화, 장대특수교량 증가로 고도의 유지관리 기술이 요구되는 추세에 시설물 붕괴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글=서미애·사진=김태규 기자